|한 해를 마무리하며|

'中道의 배'로 격랑 넘어서자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모든 시간은 변화와 함께 한다
한국사회 변화도 심상치 않아
변화의 깊이 · 넓이 더욱 커져

'패러다임의 전환기'인 현 상황
극복 여부 따라 흥망성쇠 결정

격동 변화 넘을 新사유 필요해
변화의 핵심 보는 깨달음 '연기'
연기 바탕한 중도 지혜가 절실

1969년 중부전선 DMZ의 겨울밤은 바로 공포였다. 눈보라와 칼 추위 속에서 철책선 군복무를 한 경험은 내 일생의 가장 큰 트라우마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비무장지역의 GP를 철거하고 남북 군인이 함께 이를 확인하는 뉴스 영상을 보고 있으니 세월의 무상함과 무서움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시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공자는 흐르는 강물을 보고 세월의 흐름을 서글퍼 했고, 붓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깨달음을 보았다. 새해 기해년의 새 달력에 황금 돼지가 웃고 있다. 인간의 역사는 시간을 측정하는 달력의 제작과 함께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태양계의 인간은 참으로 기이한 존재다. 바람 같은 시간을 태양의 빛으로 측정하여 자연과 자신에 의미를 부여하며 '시간의 바다'를 항해한다.

식물은 태양의 빛에 따라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낙엽을 떨구면서 겸손하게 사는데, 아마도 인간이 시간을 측정한 제일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서 나온 행위일 것이다.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나도 너도 아무도 못 봤지./ 그러나 나뭇잎이 매달려 떨고 있을 때/ 바람은 질러가고 있다.

위 시구는 영국의 여류 시인 로세티(C. Rosseti)의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에서 인용했다. 변화가 없으면 시간은 결코 지각될 수 없다. 모든 시간은 변화와 함께 온다. 그 변화는 사람을 혼란케 하고 고뇌를 일으키고 또한 망각하게 만든다. 시간은 인간 삶의 가장 큰 주제다. 인생은 시간에 실려 가는 삶의 지속이고, 그 시간은 무상하다. 고집멸도 사성제의 첫 번째 고성제가 이 변화 속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파고가 심상치 않다. 남쪽 대통령이 평양의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위인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한다는 집회도 열린다. 지금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그 변화는 깊이와 넓이가 매우 크고, 속도는 엄청 빠르다. 또한 변화의 풍향도 어지러워 방향도 가늠하기가 어렵다. 잘못하다간 엄청난 파고 속에 침몰하거나 부평초처럼 이리 저리 표류할 것이다.

지금의 시기를 학문적 용어로 '패러다임의 전환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달려 있음을 본다.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징후들,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 현상 등은 과거에 우리가 착용했던 사유의 안경으로는 그 본질을 볼 수 없다. 이 격동의 변화 속에서 항해 지도를 만들 새로운 사유의 틀이 필요하다. 여기에 연기법의 위대성이 새삼 다가온다. 붓다의 연기법은 바로 변화의 핵심을 보는 깨달음이다.

이제 혼돈과 격랑의 무술년을 보내고 기해년을 맞이하고 있다. 엄청난 삼각파도의 격랑을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이 삼각파도 속에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할 수도 있다. 여기에 격랑의 바다를 헤쳐 갈 배가 있다. 이 배는 바로 연기법을 질료로 하여 만든 붓다의 '중도(中道)의 배'다.

중도의 지혜를 이 세간에 펼칠 방편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할 때 기해년의 황금빛 돼지는 행복할 것이다.

社說

조계종 정규직 전환 환영한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들어선 지 석 달가량 지났다. 그리고 종무원 평가를 마친 집행부는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발돋움을 위해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인사를 대폭 단행했다. 전보인사만 43명,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폭의 인사다.

그런데 인사발령과 함께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바로 무기계약직 종무원의 전원 일반행정직 전환이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인사위원회는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종무원 9명을 1월 1일자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키로 결의했다. 오랫동안 내부 노동처우 개선보다 외부 노동문제에 관심을 쏟아온 조계종이기에 이번 결의는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간 조계종은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반사회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9년 만에 복직 합의서에 서명하고, KTX해고승무원들이 12년 만에 복직하게 된 배경에는 이 같은 불교계의 뒷받침이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불교계의 노력으로 사회노동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불교계 내부 노동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이는 사회노동위원회에도 화두였지만 좀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지난 9월에는 조계종 종무원들의 산별노조인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가 출범하기도 했다.

이번 무기계약직의 일반행정직 전환은 조계종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노동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해년에 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다가오는 기해년, '화합'의 한 해 되길

2018년 무술년 한해도 5일 남았다. 본지는 올해 송년호에 한해 뉴스를 정리하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한 해를 돌이켜보니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조계종 초유의 불신임 퇴진'이다. 설정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294일 만에 벌어진 일로 조계종 역사상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후 선거를 통해 원행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됐고, 종단은 안정을 찾아가는 추세다.

그나마 한국의 전통 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올해 불자들을 가장 기분 좋게 한 뉴스일 것이다. 물론 지속적인 보존 관리는 숙제이다. 특히 7곳의 산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산사통합관리단' 구성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불교계 안팎으로는 많은 일들 일어날 것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겠고, 갈등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을 기대하는 것은 '화합'이다.

지난 수년 간 불교는 첨예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변화의 시기 이제 불교계는 화합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북 익산시는 2019년 기해년 시정운영 방향의 길잡이가 될 사자성어로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선정했다. '구동존이'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하나가 되길 힘쓴다'는 뜻으로, 중국 부주석이었던 저우언라이(周恩來)가 한 말이다.

의견의 차이에 반목하기보다는 인정하고 화합하는 것은 바른 승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취임사에서 "소통과 화합, 혁신을 기조로 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은 소통과 화합의 한 해가 이뤄지길 기원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특별기고

세첸 코리아(대표 용수)의 초청으로 방한한 아남툽텐 린포체는 12월 7~8일 국제선센터에서 로종수행법회를 진행한데 이어 12월 9~14일 백담사에서 '마음의 본성' 집중 수행을 개최했다. 집중 수행에 참여한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이 자신의 수행 체험기를 보내왔다. 〈편집자 주〉

'마음의 본성' 수행 여정 끝내며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어떤 괴로움이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쉼이 온다. 그렇지 않다면 온갖 괴로움에 짓눌려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고통의 소멸도 늘 경험한다. 아남툽텐 린포체는 자연스러운 고통의 소멸을 열반이라 하고 일상에서 늘 열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신다.

흔히 열반이라고 하면 먼 미래에 명상이나 뭔가 오랜 수행 끝에 얻을 수 있는 초월적이고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린포체는 이번 생에는 도달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그 경지를 인간적 체험으로 설명한다. 즉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분노나 아픔이나 고통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면서 놀라운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본성이며 무시이래 빛나는 순수한 마음의 본성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미 나름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또 묻는다. 린포체는 6일간의 수행 중 하루를 온전히 의문과 의심의 화두를 갖고 물음을 던지는 것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머리로 아는 지적인 작업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가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그 답을 찾으라는 것이다.

이번 집중수행의 주제인 마음의 본성을 체험할 수 있는 3가지 방편으로 '자연스러운 마음을 쉬는 것' · '의심을 갖고 묻는 것' · '헌신'을 설명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서 기법 없는 기법이고 방편 없는 방편이다.

린포체는 마음의 본성을 체험하는 족첸 수행에 대해 재미난 비유를 들었는데 '건강을 위해 사람들은 헬스클럽에 가서 열심히 땀흘리고 운동하고 요가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족첸 수행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가 잠자고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 '순수자각, 알아차림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 또한 방편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붓다의 마음이라고 하면 멀리 느껴지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고 너무나 탁월해서 접하기 어려운 의식상태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 의식도 본래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반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믿음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본성 수행은 우리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 이미 완벽하기에 온 존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투쟁하고 노력해서 바꾸려하거나 초월하려는 마음, 붙잡는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바꿔보는 것이다. 짜증나거나 분노하는 마음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상호 의존적이며 연기적인 것임을 아는 것이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허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나 두려움에 휩싸여 좌절하기도 하겠지만 조금씩 미세하게 삶이 달라지는 기쁨을 맛보며 지낼 것이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방법은 없는 것일까?"

◆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祕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祕法) 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 책 자 안 내
1. 생전예수재는"왜"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2.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3.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측면에서알아두면도움되는주택풍수의좋은조건, 나쁜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책 자 안 내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 지 관 음 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 031)768-8414~6 I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